

평균값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높게 나타나 피해자의 정신건강이 가해자들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세부 항목별로 비교해보면, 피해자는 원치 않는 사고, 충동, 행동 등을 되풀이하는 강박 증상을 더 많이 보이며, ‘누가 나를 바라보거나 내 이야기를 하면 거북해진다’는 대인 예민성 부분이 높게 나타남. 우울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평균값이 높게 나와 학교폭력의 경험은 우울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불안은 피해자의 경우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불안하다’는 요인과 ‘긴장이 된다.’가 높게 나타나 긴장 이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학생의 심리치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또한 피해자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다’, ‘소외감을 느낀다’는 부분의 값이 높았으며, 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상처로 인해 편집증과 소외감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노강욱(2012)은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그림검사를 비교하여 심리적 특성을 파악함. 첫 번째 학교생활화에 나타난 피해학생의 심리적 특성은 소심하거나 불안감을 표현하고, 부정적이거나 양가감정을 보이며, 외부와의 정서적인 교류, 관계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고 있음. 두 번째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피해학생의 심리적 특성은 부정적이며 양가감정을 보이고 외부와의 정서적인 교류,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세 번째 자화상에 나타난 피해학생의 심리적 특성은 외부와의 정서적인 교류, 관계형성의 어려움, 심리적 위축, 불안정한 심상, 정서불안 및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희(2011)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영향 요인 연구-탄력성 모델을 이용하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생활목표감이나 자기효능감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았음. 이 연구에서 나타난 ‘탄력성’이란 아동과 청소년들의 강한 소속감, 강한 자긍심, 강한 자기효능감 그리고 무언가를 달성할 수 있고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자기 인식에 근거하여 개발된다고 보았으며, 특히 피해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탄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텃밭 프로그램은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마 가해·피해학생의 학부모 특성

정은경(2014)은 학부모들이 부모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부족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을 대부분 라디오 및 TV 뉴스와 같은 매스미디어나 서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부모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였다.